

채식인구 10년간 3배 증가 안심먹거리 비건푸드 '대체육 시장'이 뜬다

최근 비건(vegan)푸드가 안심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구제역을 비롯해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가축전염병 이슈 때문이다.

11일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채식 인구는 150~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9년 50만명에서 10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완전한 채식이 채식 위주 식문화로 지향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시장조사 기관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2억달러(4조8787억원) 규모의 글로벌 대체육 시장은 2026년 81억달러(9조40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베지테리언 외에도 건강,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채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커지고 있다.

대체육류인 '식물성 고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편의점에서도 비건 간편식이 등장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지난 5월부터 100% 순식물성 원재료를 활용해 만든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의 핵심은 100% 순식물성 단백질 고기다. 해



CU 채식주의 간편식 /BGF리테일



비건 간편식 시리즈 /코리아세븐

맛을 구현했다. 소고기보다 칼로리, 나트륨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 건강식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100% 식물성 콩단백질로 만든 고기를 사용한 햄버거, 김밥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푸드는 올해 상반기 식물성 대체육류 브랜드 '엔네이처 제로미트' 너겟과 까스 2종을 선보였다. 밀 단백질을 기반으로 만든 엔네이처 제로미트는 닭고기의 풍미와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통밀에서 100% 순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 고기의 근섬유를 재현하고 닭고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적합하다. 롯데푸드는 향후 스테이크, 햄, 소시지 등으로 식물성 대체육류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동원 F&B는 지난해 미국의 식물성 고기 생산업체인 비온드미트와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식물성 고기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국내에 출시된 제품은 '비온드버거', '비온드치킨스트립', '비온드비프크림볼' 3종이다. 그중 비온드버거는 2016년에 출시한 식물성 고기 패티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2500만개 이상 팔린 대표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7월까지 1만팩, 10월까지 2만팩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 식품통합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한 대체육 개발에 나서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식품 및 사료 분야 식물성 단백질 사업에도 진출했다. 지난 2017년에는 글로벌 농축대두단백 업체인 셀렉타(Selecta)를 인수했으며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활용한 식물성 고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엔네이처 제로미트 /롯데푸드



비온드버거 /동원F&B

교수가 노조를? 우려속 서울대 등서 출범

현재 "교수 노조불허 이유없어"
근로조건 악화 등 가능성 고려

대학 교수들의 노조 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원광대가 사립대학으로서 교수노동조합을 처음으로 출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에서 산별노조 격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을 25일 창립한 데 이어,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7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된 건 최근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교사에게만 노조 설립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동조합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현재는 대학교수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없어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학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고 단기계약직 교수(비정년 트랙), 강의전담 교수가 늘어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됐다. 지방대나 전문대 또는 비전임교수들의 사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대학가에서는 교수의 노조 설립과 가입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학의 상황에 따라 교수노조의 방향성에 대해



원광대가 지난달 16일 사립대로서 교수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창립했다.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국공립대는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교육 개혁 두 가지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사립대보다 정부의 입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국공립대의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학이 휘둘리면서 대학 서열화는 강화되고 대학 부실화는 가속화됐다는 게 국공립대의 주장이다. 이에 비해 사립대 교수 단체는 대학 내 민주주의 개선을 목표로 뒀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80%가 사립대인데 그만큼 법인과 이사회 영향력이 강하다.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연합(사교련) 이사장은 "왜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하고 이야

기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으로 뽑는 교수들이 전국에 60% 정도다. 심각한 정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말도 못 한다.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연봉 2400만원이나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등 사립대학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처럼 교수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현재도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작년에 판결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원노조법의 개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휴면금융 계좌 2억개... 재산 9.5조 찾아가세요"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파인' 홈페이지 휴면재산 등 조회가능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규모가 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등으로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2조3000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저히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9조5000억원, 약 2억개 계좌에 이르고 있다.

휴면금융재산이 1조2000억원, 장기미거래금융재산이 8조3000억원 규모다. 상품별로는 예·적금이 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4조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택 1000억원 등의 순이다. 이번 캠페인은 예금과 보험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결제원 등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오프닝행사를 실시했다. (왼쪽부터)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감독원

금, 증권(휴면성증권·미수령주식·실기주과실), 신탁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20일까지 6주간 실시하며, 금융회사별 개별 안내와 전 국민 대상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휴면금융 재산(잠자는 내 돈 찾기)과 장기미거래 금융재산(내 계좌화한눈에)을 모두 조회

할 수 있다.

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슬립머니)'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실기주과실(果實)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등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두달째 ↓

고용부 '10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
피보험자 357만명... 8000명 줄어

10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째 감소했다. 일부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과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기계장비업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줄었다.

이로써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지

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 9월(-7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피보험자 감소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의 피보험자가 일부 자동차업계의 실적 부진 및 산업분류 변화 등으로 9000명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설비 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업의 피보험자도 5000명 줄었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전자통신업의 피보험자도 1000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57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94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3000명 증가하며 6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손현경 기자